TV CHOSUN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수의 횡포로부터 개인 보호해야"

입력 2023.08.10. 오후 4:17 수정 2023.08.10. 오후 4:31

제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 '더 플랫폼'은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8·15 광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병철 더 플랫폼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치학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변함없이 발전할 것이다고 예측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중 선전술을 가진 포퓰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송상현 더 플랫폼 이사장도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민문화의 현 좌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21세기에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성 독재가 강성 독재로 가는 민주주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한국 정치를 분석하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중반기가 지나자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숙정과 처벌이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당면한 민주주의 위기 해소를 위해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21세기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적 평등으로 만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축사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더 플랫폼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Copyright ⓒ TV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22463